

# 정신위생분야에 있어서의 시청각자료

Brigitte L. Kenney 著  
金 英 貴 譯\*

Brigitte L. Kenney는 Colorado주 Golden에 있는 INFOCON, Inc.,의 사장이다.  
이 논문은 Kenney, Brigitte L., "Audiovisuals in mental health," *Library Trends*,  
Vol.30, No.4(Spr.1 982), pp.591-611을 번역한 것이다.

정신위생분야는 대량의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청각자료와 마찬가지로 Film, TV 그리고 Video는 교수(Teaching), 연구 환자치료 그리고 환자교육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이런 매체들의 주요 이용을 기술하고, 선정과 서지통정, 제작 그리고 자료유지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매체원(source)의 일람표로 결론을 맺는다.

여기서 시청각매체는 Audiotape와 마찬가지로 Film, TV 그리고 Video를 포함시켰다. Slides, transparencies와 다른 시청각자료는 간략하게 다루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Film과 Video처럼 위생분야에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각자료가 정신위생 치료, 연구 훈련에 어떻게 유용한가를 이해하는 사서가 필요하고 시청각전문가는 도서관에 있어서 시청각자료가 제기하는 특수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유용한, 가장 훌륭한 자료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목적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기초정보와 참고자료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1. 정신위생분야의 시청각자료 이용

정신상태의 치료에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비공개와 공개로 한 환자인터뷰의 녹음재생과 분석을 가능케 한 Audiotape recorders의 사용과 함께 시작됐다. 60년대에 음성특징을 분석하는 실험장치가 인가됐고 이것은 임상사들이 환자들의 스트레스, 흥분, 기쁨 그리고 다른 상태에 대한 진단에 도움을 주었다. 50년대 후반에 TV가 도입됐고 그 이후 그것은 정신병 치료활동에 더욱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어 있었다.

\* 啓明實專圖書館學科講師

많은 정신의학과는 그들 자신의 Studio시설과 장치를 했고 그들 학과의 모든 활동들을 Video에 담기 시작했다. Videotape는 어느때든지 만들 수 있고 편리할 때 재생활할 수 있으므로 의과대학생과 레지던트가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나중에 분석하기 위해 Tape에 담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감독과 수련이 향상된다. 정신상태 검사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Videotape 실례(實例)를 사용함으로써 Tapes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른 훈련영역에 있어서, 어린이정신병 의사는 Videotape로 된 모자(母子)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가족정신병의사의 훈련은 자기인식을 높이는 영상재생으로 향상된다.

시청각자료는 환자치료와 환자교육에도 역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영상재생은 식욕감퇴와 우울한 시청자, 광장 공포증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환자교육에 있어서 다른 예는 헤로인중독, 알콜중독 그리고 정신적으로 저능인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시청각자료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를 조사하고 재검토하기 위해 Musekari와 Kenney의 서지와 마찬가지로 MEDLARS와 ERIC database의 컴퓨터검색이 유익하다. Roeske는 정신병 훈련에 Videotape를 사용해서 얻은 이점에 대한 혼통한 조사를 하고 Video의 특수능력을 기술하고 제작힌트를 준다.

특히 정신위생분야의 텔레비전 적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거의 없다. Berger의 “Videotpe technics in psychiatric training and treatment”는 기초가 되는 좋은 교과서이다. 1978년에 갱신되어서 수집된 이 논문들은 대결, 훈련, 치료, 법률, 도덕 그리고 인종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다. 유용한 서지는 부록에 있다. Fryear와 Freshman이 지은 “Videotherapy in mental health”는 신체표현, 시각심상(心像)과 Video가 예술적으로 사용된 것을 다룬 chapter를 포함하고 있다. Worth의 “Studying visual communication”은 film과 Television의 기호학에 관한 essay를 모은 것이다. 즉 시각영상을 통해 어떻게 의미가 전달되는 가이다. Worth는 교육연구에 film의 사용을 포함했고, film 제작과정 그 자체가 시각방식의 의사 전달에 대한 이해를 첨가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Berger 많은 흥분할만한 아이디어는 미래의 시청각자료 이용에 새로운 차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시청각자료의 선택, 입수, 조직과 보관은 어떤 자료에도 기초가 된다. 덧붙여 환자의 권리와 저작권 문제와 같은 법률상으로 고해려야 할 사정이 있다. 이 논문의 그밖의 사람들은 이런 영역들을 연구할 것이다.

## 2. 선택

### a. 목록

풍부한 목록과 일람표는 정신위생분야 시청각자료 선택에 유용하다. 그러나 대부분 film과 video자료만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audiotapes, slides와 다른 매체는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찾아 불편한 곳이 없다. 거의 모든 일반 film과 video목록은 적어도 약간의 제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신위생 목적에 유익하다. 제약회사의 몇몇의 상업 film-maker에서 나온 정신위생자료의 전문일람표가 유용하다. Film일람표처럼 가치있는 다른 정보원은 정신위생도서관과 정신의학도서관에서 출판되는 많은 목록들이다. Southern California대학교에 있는 The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Educational Media가 하는 것처럼 정신위생자료센터는 많은 제목을 기재하고 있다. 수많은 대학교들은 그들이 제작하는 자료와 마찬가지로 소장자료 목록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Buffalo에 있는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lex는 순전히 정신위생에 관한 “Drug and health mediagraphy”를 2권으로 발행한다. University of Oregon의 Mental Retardation 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는 정신장애에 관한 film일람표를 만들었고, National Audiovisual Center는 정부제작 film과 특수교육에 관한 다른 자료들을 일람표로 만들고 있다.

American Group Psychotherapy Association(AGPA)와 같은 전문협회는 film일람표를 발행하고 그 AGPA일람표는 가족과 단체정신의학에 관한 것이다.

### 3. 비평과 다른 정보원

어떤 분야의 전문잡지에 실리는 시청각자료에 관한 많은 비평, 초록과 해제는 선택과정을 도와 줄 수 있다. 그들은 잠재적인 고객들이 특수한 물체, 시청자의 수준, 기술(技術)의 질,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알 수 있도록 기술적(記述的) 혹은 비판적이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에 출판하는 “Choice”와 “Booklist” 같은 일반적인 선택매체도 시청각자료 비평을 싣는다. 더 전문비평은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TV in Psychiatry Newsletter”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신의학에 관한 교과서는 가끔 저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해제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회의는 새롭고 유용한 시청각자료의 좋은 다른 정보원이다. 이런 자료들이 가끔 회의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또 소개된 자료들은 비판적인 토론이

따른다.

수많은 색인은 정신위생 시청각자료의 잠재적인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어느정도 일반적인 Film and Video Review Index와 같은 정보원은 제목만 수록하고 New York Times, Times와 Newsweek는 각 제목아래 시청각자료에 대한 모든 비평을 싣고 있다. The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Educational Media(NICEM)는 목록을 발행하고 기계가독형 data base에서 유용한 일람표를 만든다. 미국의학도서관(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AVLINE은 특히 시청각자료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4. 수 서

자료가 입수되었을 때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의 하나는 그 자료를 임대, 구입 혹은 빌릴 것이냐이다. Film과 Video자료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한 논쟁점이 된다. 인기있는 자료는 수개월 전에 예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한다는 것도 어렵다. 당장 구입하면 소장자가 그 자료를 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서 허가한다. 전문시청자에게는 원하는 횟수만큼 보여줄 수 있다. 시청자들이 요구한 것과 다른 film이나 tape를 그들에게 보여주려면 특별허가를 얻어야 한다. 구입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Videotape와 다른 시청각자료는 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한 양식을 사용해서 도서관끼리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다. 거기에는 시청자계약과 저작권계약(토론되어야 할)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출도서관이 그 자료의 안전한 반환에 대한 책임이 있다.

The National Audiovisual Center(800 Rockville Pike, Bethesda, MD 20209)는 지금 2년간 기준으로 자료를 빌려주고 있다. 유용한 Videocassette는 AVLINE Data base에 있는 것과 같이 Tag가 붙어있다. 평가를 마련하기 위해 film과 video자료를 빌리거나 이용을 요청하는 기관이 많다. 그런 평가는 적어도 두가지 목적에 맞아야 한다.

a. Best seller나 특별히 뛰어난 자료는 결정에 도움을 주고 그런 질적인 논평은 어떤 기술(記述)이나 해제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미래의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b. 평가는 제거과정에 도움을 준다. 만약 이용자논평이 꾸준히 부정적이거나 비참여적이면 문제의 그 자료는 버리거나 재순환할 후보가 될 것이다.

## 5. 목록작성

최근까지 시청각자료의 목록작성은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으로 취급되었다. 도서 자료를 위해 개발된 기술들은 작업하기에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청각자료 목록자들은 그 자료를 기술하고 목록하는데 그들 자신의 방법을 고안해냈다.

1978년에 AACR2의 출판과 함께 일련의 표준화된 절차가 유용하게 되었다. 이 규칙의 Chapter 12는 "Audiovisual media and special instructional materials"를 다루고 있고, 여러 형태의 자료의 명확한 기술에 대한 세부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해서 전에는 애매하던 것이 시청각자료 조직으로 옮기게 되었다.

The Library of Congress는 1979년에 LC의 목록작성에 유용한 NICEM Master Input Forms를 이용하여 Videorecordings를 목록하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 Video 자료를 목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양식이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그들의 매체 목록과 data base의 일람표를 만들기 위해서 목록된 항목을 NICEM에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한다면 충분한 목록서비스는 NICEM으로도 유용하다. OCLC와 같은 online 목록시스템은 점점 시청각자료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In-house활동을 착수하기 전에 체크되어야 한다. 많은 도서관은 그들 도서관처럼 시청각자료 목록의 online서비스와 계약하고 있다.

## 6. 색 인

시청각자료에 대한 주제접근이 다른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접근보다 결코 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도 시청각자료에 잘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Medical Subject Heading(MeSH)는 정신위생학 장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의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시청각자료를 위한 NLM분류시스템이다. In-depth 색인과 Videotape로 된 정신병환자 인터뷰의 검색은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특별한 부분은 확인되고, 기술되고, 평가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그래서 검색이 가능하다.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의 Medical Center는 1968-69의 연구계획 기간에 이 저자가 한 시스템을 고안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이와같은 시스템은 미래에 더욱 실현가능케 될 것이다. 다음엔 거의 비용이 안 드는 시스템이 이용된다. 주요 접근점은 보통 다음과 같다. 환자의 이름, 정신의사의 이름, DSM III에 따른 진단, 인터뷰의 형태(개인, 단체), 치료양식 그리고

Tape에 있는 장면의 시작과 끝의 위치. 색인카드는 이런 표목들로 만들어 지고 카드는 분류되어 수작업으로 조사된다. The Payne Whitney Psychiatric Clinic Medical Center(New York Hospital—Cornell Medical Center)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와같은 간단한 시스템으로 컴퓨터화가 가능할 것이다.

## 7. 보 관

시청각자료의 보관은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료의 여러 유형(類型)과 크기 그리고 Tape가 상하기 쉽기 때문이다. 인쇄자료와 꼭 같은 방식으로 시청각 자료가 자주 이용되기를 바라는 사서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자료가 같이 서가에 배열될 수 있는 컨테이너(容器)가 점점 유용하다는 것이다. 만약, 열람용목록에서 접근할 수 있고, 자료가 서로 섞여서 배열되었다면 이용자들은 모든 형태의 자료를 같이 접근할 수 있다. 보고 듣는 장치는 편리하게 배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특수캐비닛과 합가(函架)도 역시 유용하며 이런 것들은 도서관시청각자료 공급처에서 살 수 있다.

## 8. 전 환(轉換)

시청각자료를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film은 Videocassette로 이용될 수 있고 Videodisc는 더욱 쉽게 이용되고 있다. Videotape는 쉽게 복사될 수 있는 반면, Phonorecordings와 꼭 같은 방식으로 “mastered”되어야 하는 Videodisc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Mastering장치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제작설비에서 행해진다. 그들은 지워질 수 없고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 사실상 물, 공기, 광선따위를 통하지 않고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현재로, disc한면에 54,000 frames의 정보) 장점을 가지고 있다.

Micro-와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Videodisc에 축적된 정보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에도 stop-start와 freeze가 특성인 Videodisc가 In-depth 조사에 적절하다.

## 9. 테이프에 대한 주의

Tape, audio와 video는 투자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의는 중요하다. Ellison은 그의 1 page은 논문인 “Taking care of tape”에서 필요한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몇가지 점을 요약하면

Tape는 50%의 습도와 70°의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Tape는 강도(強度)의 전장(電場)과 자장(磁場)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피커는 보관된 Tape에서 3피트 떨어져야 한다. 자장내에서는 몇분안에 Tape를 못쓰게 할 수 있다.

더러운 Tape는 Videocassette기계를 고장나게 한다. 대기는 가능한 먼지가 없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 10. 환자의 권리

환자와의 인터뷰를 특징으로 하는 정신과 자료는 다른 환자기록과 꼭 같이 사생활조항에 속한다. 환자들은 보통 전문시청자나 직업적 목적을 위해서 인터뷰에 나타나도록 동의를 요청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비공식동의"에 있다. 그/그녀가 그/그녀의 가장 내적인 사고를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환자 스스로(그/그녀) 판단할 능력이 있단 말인가? 환자가 그런 결정을 할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그 정보를 제공했는가? 그 정보는 광범위한가? 환자는 진실로 자원결정을 할만큼 스스로의(그/그녀) 정신능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가? 혹은 환자는 동의함으로써 그/그녀의 임상적사를 만족시키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방대한 양의 문헌이 "비공식동의" 문제에 걸려있고 주의깊게 연구되어야만이 환자의 사생활과 결정할 자유가 보장된다. 동의의식은 다양하다. 그들은 보통 기관과 그 기관의 고용인은 Videorecording의 사용과 관련되는 모든 책임과 손해가 면제된다는 다른 성명서와 함께 "동의조항"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의 외부(대학)사용에 대한 독립조항이 있다. 어떤 동의양식도 개인기관이나 시설의 법률고문에 의해서 조사되어야 한다.

법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환자 그/그녀의 가족 혹은 친지들은 반드시 sign된 적절한 양식에 기록하거나 또는 촬영해야 한다. 도서관은 시청각자료 담당직원과 의뢰진을 위하여 이런 문제에 대한 최신정보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사서는 file에 대한 공개양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자료는 도서관에서 열람이 되고 가끔 장서의 일부분이되기 때문이다.

### 11. 저작권

1976년의 저작권은 여전히 많은 해명이 필요한 일련의 복잡한 규정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정당한 사용조항인 107항은 만족할만큼 해명되어야 한다. 공연예술부문의 특별사무실이 예술에 대한 특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LC의 저작권국에 설치되었다. 저작권국에서는 R45, 즉 “Copyright Registration for Motion Pictures including Video Recordings”와 같은 회보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다. Amato는 “Copyright made easy for film/video”라 제목이 붙여진 명쾌한 논문을 썼다. 제작자를 위한 저작권 절차의 설명과 함께 그녀는 누구누구의 소유로 있는 Tape를 재생하는데 저작권 인가가 요구되는지 안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저작권규정은 자료를 빌리는 때라도 조사되어야 한다. 발명원(發明源)이나 제작자로부터 사전(事前)인가를 받지 않는한 자료를 복사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을 갖고 있지않는 자료는 법률상 복사될 수 있다. 그러나 직업상의 예외로 복사하기 전에 인가를 요청해야 한다.

때로는 저작권 소유자가 면허가 있는 복사인가를 얻기 위한 협정이 행해진다. 이 면허는 보통 시스템내 이용에 국한된다. 어떤 저작의 여러벌 복사는 어떤 조직이나 기구의 위치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스템에서이다. 물론 임대료는 구입하는 것보다 덜 비싸다. 그러나 가격만이 임대/임차 대(對) 구입결정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신, 결정을 예상한 이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만약 film이나 tape가 한번이나 두번이상 보아야 할 것 같으면 영구장서를 위해 아마 구입해야 할 것이다.

면허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Illinois주 Wilmette에 있는 Films, Inc.이 Television Licensing Center를 설립했다. 그 센터는 교육자에게 off-air copying rights를 발행하는데 주요 공보원으로서 봉사할 것이다. 그 센터는 출판자나 상업, 공영 TV교육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제작자로부터 권리를 지킨다. 그리고 적은 수수료로 교육자들을 거쳐가게 할 것이다. 제작자는 센터에서 저작권사용료를 받는다. 한 면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3벌의 복사를 하게 하고 프로그램 시간당 일년에 50달러를 보유한다. 5년간 면허비용은 125달러 무료 시사시간은 45일이다. 그 센터는 유치원에서 성인 학자수준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취급할 것이다. 그리고 때문에 정신위생에 유용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공영TV국에서 공개된 몇몇 프로그램은 공개복사에는 매우 유용하나 많은 프로그램은 매달 제한되고 복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여기서 지적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정기간행물인 “Cable Libraries”에 기재되었다. 만약 의심스러우면 지방PBS국에 연락해야 한다. 시청각 자료에 대한 복사권이 승인된 것인지 알아내는 다른 방법은 Association of Media Producers(AMP)에 연락하는 것



이다. 이 단체는 “Directory of Rights and Permission Officers”를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Videotape방송과 비(非)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요청해야 하는 AMP회원간에 연락하는 회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부가 기재되어 있다.

### 요약과 결론

Film, video와 audiorecordings가 정신위생분야(teaching)에서 연구 그리고환자치료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널리 수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Video매체는 그 기술적인 장점인 제작과 편집의 간편함과 적응력때문에 특히 유용하다. 잇달아 시청각자료는 많은 정신위생도서관 장서의 점점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Video는 환자가 그/그녀 자신을 타인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고, 환자를 현실과 접촉하도록 하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그녀의 병의 차도에 기여할 수 있다. 환자들이 여러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므로써 교수(teaching)가 향상된다.

같은 종류의 환자를 관찰하므로써 정신위생스텝은 그들의 관찰능력, 임상판단과 진단관찰을 날카롭게 할 수 있다. 무언의 행동은 특히 잘 연구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카메라는 손이나 얼굴을 갑자기 확대(축소)시킬 수 있고 현재의 “살아있는”환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그런 행동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의 Videotapes는 다른 시청각자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신위생전문가들에게 접근될 수 있다.

Videotape recorders와 Videodisc와 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가로 인하여 Video매체의 수용이 성장하게 되므로써 그것은 의심할 바없이 더욱 정신위생분야에 통합될 것이다. 대규모의 연구는 예외없이 시각매체가 모든 형태의 정신위생 활동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주택” 혹은 “가정정보설비”의 개념이 성장해서 가정에서 모든 형태의 전자장치를 망라하게 되므로 많은 정신위생교육 역시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서 가정으로 옮겨질 것이 예상된다.